



총장축제 D-7 거리퍼레이드 광주의 대표적인 축제인 '2011 추억의 7080총장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D-7 거리퍼레이드'가 열렸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총장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6일 동안 치러진다. /니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기독교명문대학!
진리로 미래를 여는 지성인의 요람!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1. 9. 14(수) ~ 10. 7(금)
 합격자 전원 입학금 면제 장학혜택
 입학 학 부 062) 605-1114
 문의 대학원 062) 605-1115
광신대학교

우암학원 창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쌀시장 교란하는 공공비축미 방출

저가 판매로 농민들 벼랑끝 내몰아 명품 '풍광수토' 브랜드이미지 추락

지난 18일 화순군 화순읍 장터 입구. '나주농협 풍광수토' 플래카드를 건 1톤 트럭 한대가 20kg쌀 1포대를 2만9000원에 팔고 있었다. 일반 소매점 가격 4만3000~5만5000원과 비교하면 60%에 불과한 수준. 이 쌀은 지난 6월부터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다며 방출한 쌀을 나주농협이 도정해 판매한 2009년산 공공비축미였다.

앞서 이달 초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쌀 도매상. 오전 일찍 1톤 트럭이 실재 없이 오가더니 50~120포대까지 쌀을 싣고 광주 전역으로 흩어졌다.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방출한 2009년산 비축미가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생산비도 건지기 힘든 상황에 쌀값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데다 중간상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년도보다 고급미 브랜드로 만든 '풍광수토'를 농협이 저가 이미지로 추락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정부가 전국에 방출한 비축미는 모두 64만. 이중 광주·전남지역에 풀린 비축미 대부분이 '풍광수토' 브랜드를 달고 저가로 풀렸다. 전남지역 농협 미곡처리장들은 도정을 거쳐 20kg 1포대를 2만원선에 쌀 도매상과 식품 제조공장으로 넘겼고, 도매상은 1000원 가량을 붙여 소매업자들에게 재판매했다. 소매업자들은 이렇게 풀린 쌀을 원산지 표시

도 하지 않은 채 광주·전남의 소비자와 온라인 쇼핑몰, 김밥 등을 만드는 식품가공공장에 3만원 안팎에 마구 잡이로 유통시켰다.

실제 나주 농협 미곡처리장이 정부 공매를 받아 지난 6월부터 9월 초까지 판매한 비축미만 20kg들이 8만 8000포대였으며 감전농협의 통합미곡처리장에서 7만9000포대가 나왔다.

전농의 2009년 쌀생산비 추정 자료에 따르면 조곡 40kg당 생산비는 7만 3083원. 하지만 정부는 2011년산 비축미 수매가를 조곡 40kg당 4만7260원(1등급)으로 고시했다. 본격적으로 쌀이 수확되는 10월이 되도 5만5000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농측의 전망이다. 한 가마니당 농사 지원금 1만원 가량을 제외하더라도 정부 수매가격이 최소 6만원은 되어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데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가 비축미를 풀어



지난 18일 화순읍 장터에서 한 소매업자가 길가에서 2009년산 공공비축미를 20kg 1포대에 2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지부 제공>

쌀값을 내렸다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지부 박형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쌀값이 많이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쌀값은 평년 수준(80kg·9월 15만5000원)에 비하면 오히려 낮다"며 "올해 쌀 생산량마저 집중 호우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 정부가 농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농민들은 이같은 정부의 행태에 더해 농협까지 손쉬운 돈벌이에 가세하면서 '경각 의욕마저 상실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송정~순천 전철화 조기 추진 광주~대구 내륙鐵 건설 검토

광주시, KTX 시대 대비 검토사업 착수

광주시가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구간 전철화사업 조기 추진,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 광주역 유류부지 및 역세권 개발 등을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했다. 2014년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송정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앞두고 이들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 KTX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한국교통연구원은 20일 오후 시청에서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연계 광주권 철도망 확충 방안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2014년 호남고속철도 완공과 함께 철도가 대도시 간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고 오는 2016년으로 예정된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 착공시기를 앞당기는 등 미흡한 광주권 철도망의 보완에 나선다는 것이 광주시의 복안이다.

경전선 중 동순천~광양 구간과 광양~진주 구간은 오는 2015년까지 각각 4000억원과 1조원이 투입되는 반면 광주송정~순천 구간은 2016년 이후로 정책 우선순위에선 뒤쳐져있는 실정이다.

2014년 광주~서울은 1시간대로 줄여지지만 2020년까지 광주~순천은 여전히 기차로 2시간23분이 소요되면서 서비스 격차가 커진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광주송정역과 동대구역 을 잇는 연장 186km의 내륙철도의 건설방안을 검토하고, 존재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역과 관련 존치 시야 폐지 시 개발방향 마련도 이번 용역에 포함됐다. 용역결과는 내년 8월 나올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수출된다

프랑스·터키에 성공 노하우 전수 이번폴리 해외 순회 전시도 추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 노하우를 프랑스와 터키에 수출한다. 2년에 한 번 미술 비엔날레를 개최했던 이들 국가들이 미술과 디자인비엔날레를 번갈아 여는 광주를 벤치마킹, 디자인비엔날레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

또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특별프로젝트인 이번폴리의 해외 순회 전시가 추진되고, 일부 작품은 대기업으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는 등 예술성과 산업화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았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이스탄불비엔날레와 리옹비엔날레 관계자들이 디자인비엔날레 창설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최근 이들 관계자들이 직접 광주에 찾아와 디자인비엔날레 기획과 운영 방법 등을 배워갔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의 비엔날레들이 미술 장터인 아트 페어의 거센 도전을 받으며,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

다. 이들 국가가 광주를 찾은 것은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비엔날레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탈리아 베니스가 미술 비엔날레의 효시였다면, 광주는 디자인 비엔날레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셈이다.

또 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한 건축조형물 이번폴리(Urban Folly)의 세계 순회 전시도 추진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광주를 따라 이번 폴리를 추진하겠다고 하며 광주시와 협의를 마쳤다.

재단 관계자들이 이번 폴리를 광주 대표 문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해외 순회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이번 폴리의 모형과 영상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를 의뢰하는 등 국내외 건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품작에 대한 러브콜도 이어졌다. 최근 포스코의 고위 간부들이 이번 전시에 소개된 '바이크 행어(Bike hanger)'의 기원 및 제작 여부를 의뢰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은 포스코는 공장에 이 환경친화적인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기 위해 재단 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함께 걷자, 가을 속으로 나주 영산강길·담양 수목길 걷기대회

청명한 햇살, 코스모스가 손짓하는 강길, 들길을 따라 함께 걸읍시다. 해마다 가을 걷기대회를 개최해온 광주일보사는 올해 2개의 명품 걷기코스를 선정,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전남의 자연 속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걸으며 건강과 낭만을 챙겨 가지기 바랍니다. 참가자 모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비 무료!
- 선착순 1,000명!

영산강길 걷기대회

일시: 2011년 10월 8일(토) 오전 9시 30분
 장소: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공원

담양수목길 걷기대회

일시: 2011년 10월 22일(토) 오후 1시
 장소: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광장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NA JU 나주시 담양군
 주관 | 광주일보사 문의 | 062-220-0541

